

# 지역화시대의 지역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안연구

— 화천지역을 사례로 —

최 홍 규\*

## The Study of Plans to Construct the Content of Regional Geography for Regionalization — Centered on Hwacheon Area as a Studying Case —

Hong-Kyu Choi\*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역화의 조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지리교육에 반영하고자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편성의 자율화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국가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지리교육의 지역화에 따른 새로운 지리교육 학습내용 선정과 구성 및 교수 학습을 하기 위한 사례지역으로서 화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지리적인 사실을 단순히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교육적인 관점에서 학령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현재 초·중학교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지역교과서의 차원에서 지역학습을 해야만 한다. 학습 내용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자들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야만 하겠다. 아울러 학습 지역의 규모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범위내의 일상적인 사실을 중심으로한 소규모지역을 학습 내용으로 하였기에 야외조사 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주요어** : 교육과정의 자율화, 지역학습, 지역지리교육, 지역교과서, 학습의 전이효과

**Abstract** : In this study the meaning and necessity for self-regulation in managing and organizing the national curriculum is researched in order to reflect the reality that the tide of regionalization appears apparently with globalism.

Hwacheon is chosen and applied as an example region for selecting and forming a new learning content in geography education and teaching and learning that content.

The regional geography should be learned in high schools according to the approach of regional textbooks being made and used now in primary and middle schools, and the contents of textbooks should be proper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students' school ages rather than organized simply with enumerating geographic facts in a row. And the contents should be organized centering on the learners' daily living sphere. In addition, teaching-learning metho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regions. Consequently, in this study small-scaled area was chosen as a learning content, laying stress on daily lives within the living zone, and therefore field work is considered as a learning method.

**Key words** : Self-regulation in curriculum, Regional study, Regional geography education, Regional geography textbook, Transfer effect in learning

### 1. 들어가며

세계는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지역화과정을 거쳐 상이하게 개별화된 하나의 특징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과정은 특정 지역과 제한된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향촌의 규모에서부터 지구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가 지표 위에 분포하여 있다.

오늘날의 향촌과 세계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시·공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지역화라는 조류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미래를 살아갈 오늘의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식의 전환을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교육

\* 강원도 화천군 사내고등학교 교사(Teacher, Sanae Hight School)(dasom902@chol.com)

과정의 지역화를 이루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지역지리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서 효율적으로 교수 학습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화시대를 맞아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고등학교 지역교과서를 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지리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둘째, 지역지리 교육내용을 실제로 소규모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하여서 일반화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지역교과서로서의 예시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화천지역은 강원도의 북서내륙에 위치하여 남북간의 점이적 위치에 해당하며 험준한 산악지형과 북한강이 어우러져 전형적인 산간지역으로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북한의 금강산댐에 대응하여 축조된 평화의 댐은 최근에 다시 금강산댐 공사로 인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과 화음동정사지(華陰洞精寺址) 및 잘 보존된 광덕계곡은 인근지역과 수도권지역에서도 즐겨 찾는 관광지로서 특성을 갖춘 곳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춘 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지리 교육내용을 구성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지리 학습에도 전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 2.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구현 수단으로서의 지역지리교육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이란 각자의 고향, 고장, 향토를 말하는 동질적이고 정서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었지 현대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의 장소는 아니었으므로 거주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또한 지역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공간이며 삶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로서 아주 다양하면서도 친근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 지역은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리 학습 측면에서는 지역을 보다 축약시켜 학습 자료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교수요목기로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를 보

면 향토 단위 또는 각 지역의 생활단원에 사례로 제시된 지역학습 내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일률적으로 학습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리적인 내용을 사례 지역의 학습 내용처럼 재구성하여서 교수 학습하라고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그 동안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지리 교육내용은 예시된 수준에만 머물러 왔기에 그 효율성에는 의문이 있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교육과정 중,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편성의 자율화가 시작된 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과 편성의 자율화는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단지 운영상의 자율성을 허용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sup>1)</sup>

교육과정의 자율화에서 지리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세계화에 부응한 지역화의 의의가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 각 지역의 지리적 사실을 재구성한 지역교과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지리적 사실을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는 지역교과서를 제작해서 학습한다면 유용하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교과서는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한 교육 자료로서 학교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교과서 구성을 위한 지역 이해는 국지적 시야로부터 세계적 시야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인 공간 사이의 연계성 위에서 잘 파악되어야만 한다. 현재도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지역지리 교육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의 교육도 국가적 시야, 세계적 시야의 지역지리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지리교육에서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었지만, 세계화와 지역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소규모 지역에 대한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현재 지역교과서는 지역사회 단원이 지역교과서 시행을 위한 사례 단계의 교과 내용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초·중학교는 지역

교과서를 편찬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연속성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지리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의 지리적 사실, 현상, 특징이 지역화를 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역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위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범주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학령 단계에 따라서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시작하여서 도 단위, 각 지방, 우리나라 및 세계지역으로 까지도 넓혀 갈 수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교과서를 학습한 경험과 그 결과로 얻어진 이해력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역정체성과 애郷심을 향상시켜 가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교과서는 학습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능동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오늘날 지역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지리 학습의 발전적 모형을 개발·교육함으로써 지역을 더욱 이해하고 지역간의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한편, 생활 중심의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운동이 또한 긴요한 시기이다.

### 3. 지역지리 교육내용의 구성 요소

#### 1) 지역지리 교육내용의 준거

지역지리교육을 하기 위한 출발점은 특정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인 사실, 내용, 현상, 사상 등과 지표 위에 분포하는 제반 지리적인 요인들 내에 내재해 있는 개념과 일반화 할 수 있는 원리로부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들과 내재해 있는 개념 및 원리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논리를 본 고에서 준거로 삼는다.

전통적인 지역 개념만을 가지고 급속히 변화해 가는 지역을 해석하기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관 구성이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화천 지역을 전통 지역지리 중 경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화천의 산지 지형과 하천지형을 비롯한 자연환경은 단순하게 시·공간적인 체계에서 볼 때는 변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형태 측면에서 시·공간적으로 볼 때는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인문 환경의 측면에서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화천지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도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지역을 계통지리 방법으로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란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지역지리에서 소홀히 하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새롭게 지역 학습에 도입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둘째, 신지역지리에서 지역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화천지역을 본다면 근·현대사 동안 역사의 격랑 속에서 중심 위치에 있었고, 미래의 화천지역은 시대 상황과 남북간의 관계 진전에 의해서도 아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장소의 이미지를 만드는 신지역지리의 관점과 화천지역에 대한 언론 매체의 홍보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지지역으로서의 화천지역을 강조하여 학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내용을 학습 내용으로 재구성한 지역교과서를 구성하고자 한다.

셋째,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자연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지역주민의 노력하는 모습이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잘 표출된 형태는 지역 특성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지역교과서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준거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모습과 우리의 근·현대사 및 미래도 잘 표현해 줄 것으로 예견되는 화천지역을 적절한 교육 내용으로 재구조화하여 효과적인 지역교과서로 구성하려고 한다.

## 2) 지역지리교육 학습내용의 범위(scope)

국가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지역화와 자율화란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의 범주가 지역지리교육의 학습내용으로 변환되어 학습의 장소로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벗어나 도 단위지역, 전국의 각 지방 및 국가, 더 나아가 세계지역은 학습자들의 학령 단계와 연령에 따라서 학습 대상지역으로서 갖는 교육적인 의미는 상이하게 된다. 환언하면 유치원에서는 자신의 가정과 친구, 초등에서는 친구, 이웃, 각 지방 및 국가적인 범주까지를 포함한 학습범위가 지리교육의 학습범위가 되는 것이다. 즉 학령별 인지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점차 범위를 확대해 가는 동심원적 확대가 보편화된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이르면 형식적인 인지수준에서 추상적인 인지의 범위로 확대되어 감으로 그 학습의 대상지역 또한 더욱 확대되어지고 복잡해진다.

학습의 범위를 인지수준에만 맞추어서 결정한다면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학습 대상 지역의 범위는 지역학습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본 연구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범위 선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지역을 지역학습하려는 입장에서 화천지역 고등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권인 화천지역 전체를 선정하여 지역교과서 내용으로 재구조화하려고 한다. 물론 고등학생들의 학습 대상 범위는 세계지역까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수준에 비해서는 매우 협소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교육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소규모지역을 학습하려는 지역지리 학습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다.

## 3) 지역지리교육 학습내용의 계열(sequence)

지역지리교육 학습내용의 계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학습내용 구성과 학습효과 측면에서 상이

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화천지역을 지역지리 교육내용으로 구성할 때 전술한 지역에 대한 논리적인 준거와 학습내용의 범위를 통해서 사례지역에 대한 교육내용의 계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화천지역의 지역지리 교육내용을 기존의 계통지리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협소한 학습범위와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단순화시키고 기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저하된다고 본다. 둘째, 이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선행적인 지식과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해 인지된 지역인식 및 장소에 대한 경험 결과 내재된 인식 등에 의해서 지역지리교육을 할 때 기존의 학습내용으로는 학습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지역을 학습할 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규모에 따른 학습 효과를 거양하려는 측면에서는 야외조사 학습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화천지역의 지역지리교육 학습내용의 계열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시야에서의 화천, 한반도 시야에서의 화천, 중부지방 시야에서의 화천에 이르기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화천지역을 거주민의 삶이 연속되는 터전인 자연지리적인 측면과 지역사회 거주민의 적극적인 삶의 적응 행태를 표출한 문화·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지역지리교육 학습내용의 계열로 하고자 한다.

물론 학습자들이 성장기의 대부분을 거주해 온 지역임으로 유무형의 선행적인 학습의 결과 학습 무용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역지리 학습의 목적 수행과 학습 효과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다.

## 4. 지역화시대에 적합한 지역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

『화천지역의 지역지리』

♡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 휴전선을 경계로 북부지방과 나뉘어지는 중부지방은 다시 수도권, 관동지방, 호서지방으로 구분한다.

▶ 관동지방은 태백산줄기를 경계로 영서·영동

지방으로 나뉘어지며 한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 영서 북서부지역에 위치한 화천지역을 세계적인 시야에서의 화천, 한반도 시야에서의 화천, 중부지방 시야에서의 화천, 화천지역 이해의 자연 지리적 기초, 화천지역 이해의 문화·역사지리적 기초, 화천지역의 미래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 지리부도에서 화천지역 내외 주변의 지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 화천지역 자연환경의 특징을 알아보자.
- 화천지역 농업의 특징을 조사해 보자.
- 화천지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관광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 보자.
- 화천지역이 갖고 있는 세계화 시대와 지역화 시대의 특징을 논의해 보자.

### 1) 세계적인 시야에서의 화천

(1) 아직도 동서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화천 지역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민족이 냉전의 체제에 의해 분단된 나라로서, 그 분단의 현장에서도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겪어 왔던 지역으로서의 화천이다. 분단된 지 반세기만에 남북의 정상들이 모여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 의정서가 체결되어지고 닫혀진 빗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휴전선 이북에 고향을 두고 월남한 실향민들이 명절 때나 성묘를 할 때면 제한된 장소와 시간 내에 제사를 지내거나 별초를 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사적인 곳이다.

이와 같은 비극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대로 사람들과 땅이 하나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2) 한반도 시야에서의 화천

(1) 관동지방과 관북지방 사이의 접이적 위치에 있는 화천지역

▶ 화천은 선사시대에 한강을 거쳐 북한강을 따라서 상류인 양구와 금강산지역으로,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는 영서 북서지방으로부터 함경도지방으로 또는 그 역으로 이동하는 통과지로서의 역할을 한 지역이다.

광복 후에는 N 38°이북이어서 인민공화국시대, 6.25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회복되었지만, 과거에 관동지방과 관북지방 사이의 사람과 문화가 교류되는 접이적 위치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다.

(2) 역사적인 자취와 남북 분단의 모습이 남아 있는 화천지역

▶ 화천지역 선사시대의 유적은 모일(暮日)·산곡(山谷)·동촌(東村)·반구포·신내 등의 유적이 있다. 인접한 양구군 상무룡리에서 대량의 구석기 유물이 조사된 예로 보아 화천에서도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가능성은 앞으로 많지만 댐의 축조로 수몰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어려운 상태이다.

신석기시대 이후의 유물로는 간동면 유촌리에 몇 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며, 간동면 간척리에도 돌무지 무덤이 조사되었으나 군부대 건설 때 석재로 사용하여 지금은 볼 수 없다. 화천읍 하1리와 하남면 거례리·위라리 등지에서도 돌도끼가 수습되었으며, 화천읍 상2리에서는 돌화살촉이 발견되었다. 한편 위라리와 사내면 용담리에서는 돌끌, 돌망치가 수습되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석기가 발견되었다.<sup>3)</sup> 또한 하남면 원천리에는 시대 미상의 고분 2기가 있었다.

『삼국사기』권 35(지리지 2)를 보면 「낭천군(狼川郡)은 본래 고구려의 성천군(狝川郡)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쳐 지금에 이른다」고 하였고, 같은 책 지리지 4에는 고구려의 지명을 소개하면서 「성천군, 야시매라고도 한다」라고 쓰여 있다. 낭천과 성천이 한자식 지명인데 반해 야시매는 우리말 즉 가차이다.

낭천군의 영속 연혁을 살펴보면 「낭천은 본래 고구려의 낭천이었다」하므로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되기 전에는 고구려의 영토였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백제가 한강 하류에 도읍을 정하고 한반도 중부지역을 점유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강 상류에 위치한 낭천도 처음에는 백제의 영토였을 것이다.

그 뒤 후삼국 시절, 낭천지역은 당시 양길의 휘하에 있던 궁예에 의해 통치되던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 이래의 9주 5소경 제도를 12목으로 개편하면서 강원도지역이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고려는 현종 9년(1018)의 지방제도 개편을 거쳐, 대체로 예종대에 이르면 5도 양계제로 정착된다. 낭천군은 교주도(交州道)의 춘주(春州) 소관으로서 예종 원년에 감무를 두어 양구를 겸임하게 하였는데, 조선 태조 때에 다시 나눠졌다.

조선시대의 화천은 춘천, 철원으로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었고, 심지어는 경기도 포천군에 복속된 시기도 있었다. 또한 김수증선생의 은거지였던 곡운정사, 화운동정사지, 곡운 구곡으로 유명한 광덕계곡은 우암 송시열선생의 뜻이 깃들여져 있는 충청북도 청주의 화양동계곡만큼이나 유명한 곳이다.

현대사와 함께 화천은 N 38°이북지역이어서 인민공화국시대를 겪었고, 민족상잔 6.25전쟁의 격전지 중의 한 지역이었다. 현재는 화천의 북부지역을 철원군의 행정구역이 감싸고 있는 형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원지역이 비무장지대이어서 남북간의 대치 장소 및 통일의 전초기지로써의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화천은 한반도의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사까지의 모습을 잘 간직한 역사가 살아 있는 장소이다.

▶ 함께 생각해 보기

화천지역에는 선사시대의 유적이 어디에 무엇이 많이 있는지 알아보자.

3) 중부지방 시야에서의 화천

(1) 영서북서내륙지역에 위치한 화천지역

☞ 화천지역은 금강산에서 갈라진 광주산줄기로 둘러싸인 산지지역이어서 외부와의 교류가 극히 제한 받아 온 강원도 영서북서부의 내륙지역이다. 현재 화천은 접적지역으로서 6.25전쟁 때 백암산전투의 상흔이 남아 있는 비목공원과 굴절된 현대사가 깃들인 평화의 댐과 같은 안보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남북간에는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북한강 수계의 수자원 사용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안보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특히, 화천의 북쪽 전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구역이어서 자연 환



그림 1. 비목 공원

경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후에는 생태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예정지로 충분한 곳이다.

(2) 편마암 산지로 둘러싸인 녹색 댐과 북한강 협곡지대

☞ 화천지역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한 경기편마암복합체의 광주산줄기로 둘러싸인 곡중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풍화를 받은 편마암산지는 토양이 잘 발달하여 사면이 안정을 이루고 식생이 잘 발달하며, 토양의 보수력이 커서 산지 자체가 거대한 댐의 역할을 하는 녹색 댐이 된다. 녹색 댐인 산지는 화천지역의 경작지에 영양염류가 풍부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어서 이 지역의 농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편마암 산지로부터 흘러내린 많은 하천수는 화천지역을 관류하는 북한강 수계에 많은 댐 건설을 가능하게 하여서 관개 면적 확대를 비롯하여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화천지역의 산지는 혹한기의 북서계절풍을 막아 주는 병풍 역할을 하고 있어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

화천지역은 광주산줄기에 의해 서쪽의 낮은 산지와 동쪽의 높은 산지의 중간에 위치함으로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이 머물렀을 때 주로 지형성 강우가 내리는 지리적 위치이다. 최근 '96년과 '99년에 상류지역은 큰 수해를 겪었지만 하천 분류 유역은 협곡을 이루어서 홍수 피해는 적었다.

(3) 인구부양력이 작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인구과소지역

☞ 화천지역에 선사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

는 것을 볼 때 하천 주변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이나 험준한 산지와 협곡의 하천주변에 협소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하였다. 물론 편마암 풍화토로 인한 영양염류와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였기 때문에 농토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산지사면을 이용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최근 화천은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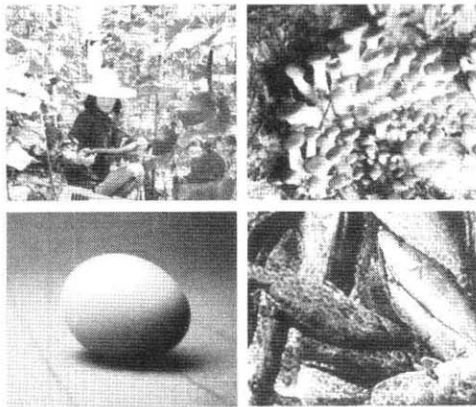


그림 2. 화천의 특산물(오이, 표고버섯, 계란, 쓰가리)

의 국경 없는 현실 속에서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표고버섯, 가시오이, 토마토 등의 청정 농산물을 특화작물로 재배하여서 현실을 타개해 가고 있다.

(4) 인간 간섭이 적고 미래가 있는 광역 생태공원지역

☞ 오늘날 화천은 남북분단의 상황으로 민통선의 실시가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광역 생태공원지역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적은 인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화천지역의 미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민들이 책임지고 가꾸어 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미래의 화천은 남북을 잇는 통일의 출발지점에서 그 역할이 기대되며, 또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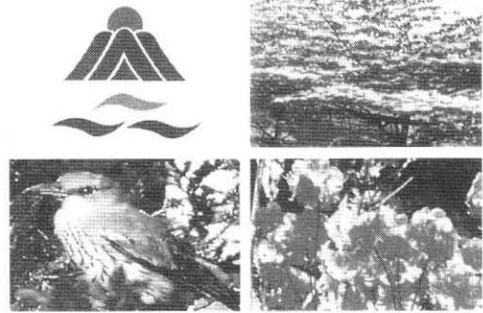


그림 3. 화천의 상징(군기, 충충나무, 피꼬리, 진달래)

앞으로 화천은 혼잡한 도심의 회색 건물 숲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전원적인 삶이 지속되는 생태도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4) 화천지역 이해의 자연지리적 기초

※ 화천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1) 산으로 둘러싸인 화천

☞ 강원도의 북서내륙지역에 위치한 화천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으로서 동으로는 양구군, 서로는 경기도 포천군과 가평군, 남으로는 춘천시, 북으로는 철원군과 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북쪽지역과는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극히 제한된 주변지역과의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전체에서 화천지역의 위치는 중앙 경선(E 127.5°)부근이며, 남북간의 위치에서도 휴전선의 중앙부에 위치함으로써 분단 전에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접근이 용이한 위치였다.

화천지역의 주변지역은 태백산줄기의 금강산(1,638m)과 향로봉(1,293m) 등에서 분지한 광주산줄기가 가칠봉(1,241m), 대암산(1,304m), 백석산(1,141m)을 거쳐서 백암산(1,179m), 재안산(1,071m), 일산(1,190m), 사명산(1,198m), 부용산(882m), 응봉(1436m), 화악산(1,468m), 백운산(904m), 광덕산(1,045m), 대성산(1,175m), 적근산(1,073m) 등이 화천지역을 둘러싼 형국을 이루고 있다.

표 1. 화천군의 지리적 위치

위치 \ 방위	극 동	극 서	극 남	극 북
위치 및 지명	E 127°50' 간동면 방천2리	E 127°27' 사내면 광덕4리	N 37°59' 간동면 방천2리	N 38°14' 화천읍 풍산2리

표 2. 화천읍 시외버스 정류장의 주요 노선별 운행 횟수

행선지	운행	상행(화천-춘천-서울)	하행(서울-춘천-화천)
춘천 서울 상봉동 서울 구의동	첫차시간	06 : 15	06 : 00
	막차시간	21 : 00	21 : 00
	1일 운행횟수	35회	35회

☞ 탐구활동

1. 지리부도를 보고 화천지역 주변에는 어떤 지역이 위치하는지를 조사해 보자.
2. 지리부도를 보고 여행하고 싶은 세 곳을 선정하여 교통편을 따라 그려보자.

(2)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 하천유역

※ 화천지역 하천지형의 특징을 이해하여 거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 화천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는 북한강은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남도의 접경지 산지에서 발원한 북한강 본류와 금성천 및 금강산에서 발원한 금강천이 평화의 댐 북쪽에서 합류하여 형성된 대하천이다. 대체적으로 북한강의 본류는 화천댐, 춘천댐을 관류하기까지 많은 소지류들이 합류하여



그림 4. 춘천호



그림 5. 파로호

대하천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강유역에는 길고 좁은 선형의 퇴적지형이 형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중환의 택리지 중에는 다음과 같이 화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바다 조수가 통하는 곳은 그만두고, 오로지 강 배가 오가는 것만으로 말한다면, 강 배는 작으므로 바다에 나가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 온 나라 안에서 오직 한강이 가장 크고, 근원이 멀며 조수를 많이 받는다. 동남쪽으로는 청풍의 황강, 충주의 금천과 목계, 원주의 홍원창, 여주의 백애촌과, 동북쪽은 춘천의 우두촌(牛頭村), 낭천의 원암촌(元巖村)과, 정북쪽으로 연천의 징파도에는 배편이 서로 통하며, 아울러 장삿배가 외상 거래를 하는 곳이다.”<sup>4)</sup> 이와 같은 역사서를 통해서도 화천지역의 하천과 하천유역은 거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함께 생각해 보기

1. 화천지역의 하천지형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보자
2. 화천지역의 하천지형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 보자

5) 화천지역 이해의 문화·역사지리적 기초

※ 화천지역 원예농업의 자연적·사회 경제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1) 취락과 농업

☞ 화천지역의 취락은 산과 경지가 접하는 곳이



나 하천 주변에서 지하수를 국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소에 집중 분포하는 전통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또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입지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상수도의 보급과 관정 개발로 생활용수를 얻기가 쉬어져 농경지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자신의 농경지 주변에 가옥을 이주하기도 한다.

화천의 가옥은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ㄱ’ 또는 ‘ㄷ’자형이 분포하기도 하고 겹집 형태의 폐쇄형도 나타난다. 또한 영농의 기계화가 진전되어서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이앙기, 건조기, 분무기 등 농업용 기계와 설비가 많아져 현대화된 구조와 시설을 갖춘 가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북부 중산간 지대인 화천지역은 협소한 경작지에서 조생종 계통의 벼를 재배하고 있어 전국의 타 지역보다도 조기 수확을 한다. 농업의 자연적 조건은 열악하지만 청정 농업 환경을 이용하여 표고버섯, 토마토, 가시오이, 꽃 등을 특화 재배하여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짧은 무상일수와 낮은 기온으로 작물의 생육기간이 짧아 1년 1작의 경작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 함께 생각해 보기

화천지역의 쌀 농사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해 보자.

☞ 탐구활동(표 3)

1. 화천군의 인구 통계표를 보고 인구 구성의 특성을 비교해 보자.

2. 화천지역의 인구구조상 젊은 연령층(20~49)이 적은 원인을 생각해 보자.

3. 화천지역의 척박한 농토와 인구 구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자.

※ 화천지역의 취락 입지조건과 촌락 분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함께 생각해 보기

1. 화천지역의 촌락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야기해 보자.

2. 화천지역 가옥의 내부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6) 화천지역의 미래상

(1) 관광지역으로서 떠오르는 화천

※ 화천지역의 역사적 자취와 남북 분단의 상황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관광지역으로 떠오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함께 생각해 보기

1.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화천지역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 화천 광덕계곡에는 조선시대 김수증선생이 화음동정사를 지어서 후학들에게 유학을 전승하고 연구를 하였던 곳으로 우암 송시열선생의 화양동과 함께 조선 중기의 유학을 대표하는 곳으로 현

표 3. 화천군 인구피라미드 도표 (2002년 외국인 제외, 단위 : 명)

연령구분	계	인구		연령구분	계	인구	
		여	남			여	남
계	24,965	12,120	12,845	45~49	1,458	640	818
0~4	1,893	901	992	50~54	944	513	431
5~9	1,765	850	915	55~59	1,419	740	679
10~14	1,413	708	705	60~64	1,663	927	736
15~19	1,438	689	749	65~69	1,103	604	499
20~24	1,686	751	935	70~74	765	473	292
25~29	2,289	967	1,262	75~79	543	320	223
30~34	2,148	971	1,177	80~84	320	183	137
35~39	2,011	894	1,117	85세 이상	239	151	88
40~44	1,928	838	1,090				

자료 :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2



그림 6. 화음동정사

제, 화음동정사를 가늠할 수 있는 터가 남아 있다. 한편 광덕계곡에는 곡운 구곡의 수려한 경관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역사 변환기의 중심에 있었던 화천지역에는 일제강점기의 통치, 광복후 인민공화국시대의 통치, 6.25 전쟁의 상흔, 남북간의 이념적 대립 등의 역사적인 의미가 남아 있는 장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 예로는 화천댐을 건설할 때 다리로 사용했던 꺼먹다리, 화천댐과 화천발전소, 다목리의 군휴양소로 이용하고 있는 인민군 막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등이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화천지역은 수도권의 팽창과 그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근·현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심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근·현대사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이 땅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더 잘 인식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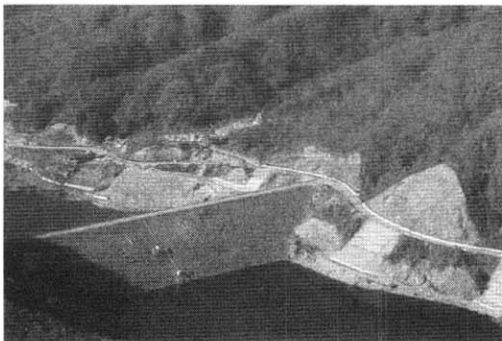


그림 7. 평화의 댐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소로서 학습하는 것이 바로 안보관광지로서의 화천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1980년대 북한강 상류지역의 금강산댐 건설로 인해 대응하는 댐으로서 건설된 평화의 댐이, 최근 금강산 댐 증축 공사와 맞물려서 보완 공사와 증축 공사가 실시되어 안보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화천지역의 안보 관광자원은 철원군의 노동당사, 철원역과 월정리역, 금강산 전철, 제2땅굴 등과 양구군의 해안분지, 제4땅굴, 도솔산 전투 전적지, 그리고 고성군의 통일 전망대를 묶어서 강원도가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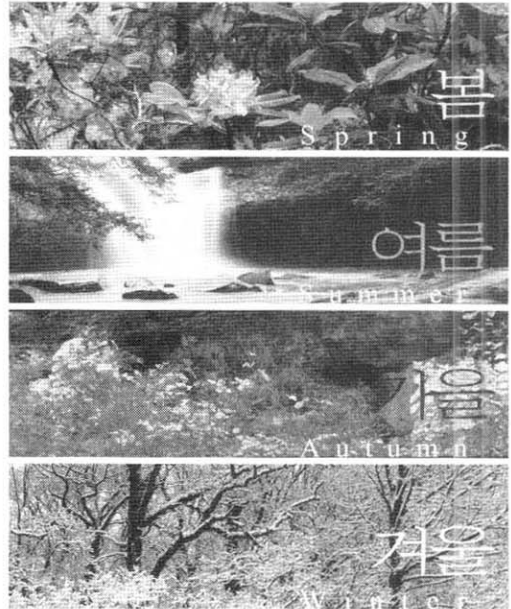


그림 8. 화천의 사계절

일 안보 관광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 그 일환을 담당하고 있다.

(2) 생태보전을 위한 노력

※ 천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화천지역을 잘 가꾸고 지켜 나아갈 수 있다.

☞ 화천지역의 민통선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극히 제한한 결과 분단의 시기만큼이나 자연환경이 세계적으로 잘 보전되어 있다. 나아가 이 지역 주민들 자체도 청정환경을 최대한 지속하기 위해

서 각종 생업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을 자제해 가고 있다.

현재 화천군민들은 휴전선 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민통선구역의 청정환경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존해갈 것인가? 가 큰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화천지역은 북한강 수계의 상류라서 지역 개발에 많은 난제와 제약이 있음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극히 정체되어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청정환경을 어떻게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과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에게 어떠한 삶의 질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하겠다.

▶ 함께 생각해 보기

1. 화천지역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이야기해 보자.
2. 화천지역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가꾸고 지켜 갈 것인지 논의해 보자.

7) 화천지역의 지리 조사하기

지역의 이해는 지리 학습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전지역을 다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여서 그 지역의 지리적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을 이해

할 수 있고, 나아가 동일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지역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화천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리 조사의 순서와 내용을 알 수 있다.

(1) 화천지역을 왜 조사하려는가?

① 조사 주제의 선정

화천 지역교과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화천의 어떠한 점이 조사 목적에 적합했기 때문에 조사지역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다음에서 제시한 조사 목적란에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자.

가. 조사 목적 : 실제로 해보기 1.

㉠ 산지지형과 하천지형에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은 무엇인가?

㉡ 취락이 입지한 곳의 자연적 입지조건은 무엇인가?

㉢ 원예농업이 발달하게 된 자연·사회 경제적 조건은 무엇인가?

㉣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자원을 나열해 보자.

(2) 화천 지역은 어떤 곳일까?

① 지형도 분석 : 실제로 해보기 1.

다음은 화천읍과 사내면 지역의 지도이다.

가. 두 지도의 비교를 통해서 자연환경과 토지 이용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나. 두 지도를 비교하여서 시가지의 확장과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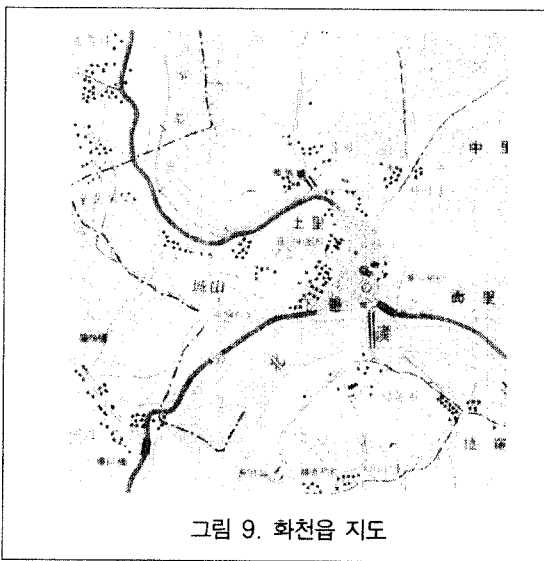


그림 9. 화천읍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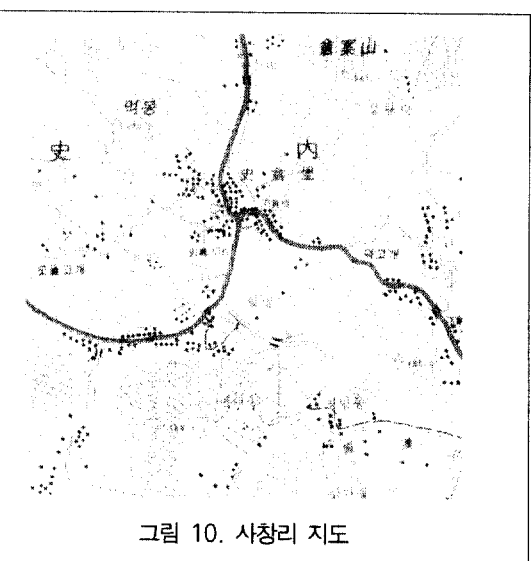


그림 10. 사창리 지도

지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

② 통계자료의 분석 및 표현 : 실제로 해보기 2.

다음은 화천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통계자료이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

③ 문헌 자료 분석 : 실제로 해보기 3.

다음 글을 읽고 화천군의 환경정책을 이야기해 보자.

화천 '환경체험학습장' 인기 : 화천군이 '청정 환경21'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체험학습장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체험학습장을 다녀온 한 학부모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다녀온 후 아이가 평소와 달리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동생에게까지 가르쳐 주는 등 배울 점이 많아 주부들도 견학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화천군 홈페이지에 올렸다.

환경체험학습장은 화천군에서 지난 7월 하남면 논미리 위생매립장에 설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교육장으로 이용, 관내 초·중·고교생 40명 이내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시설 견학 및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실습을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 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현재 40회에 걸쳐 1천200여명이 참여했다. 화천군 생활쓰레

기 소각시설은 국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루 2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고효율 스토카방식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2㎡의 소각동 1동과 지상 1층 연면적 135㎡의 선별동 1동으로 한 달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지난 7월 1일 준공돼 정상 가동 중에 있다.

화천/김용식 강원도민일보 2002년 11월 22일자 기사.

(3) 화천지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지?

야외 조사를 할 때에는 보다 효과적인 야외 조사 활동이 되도록 실내 조사에서 미리 조사 경로와 각 장소에서 조사할 항목 및 조사 방법을 결정해 두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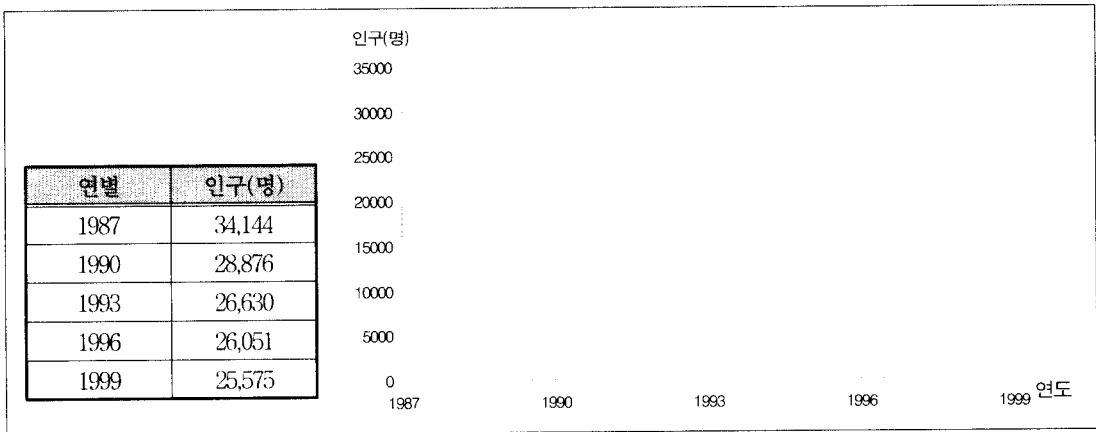
① 야외 조사 항목 : 실제로 해보기 1.

다음은 화천을 지리 조사할 때 방문해야 할 곳들이다. 각 조별로 조사할 곳을 하나씩 선택하고, 그에 따른 조사 항목을 결정해 보자.

(4) 화천지역 야외 조사는 어떻게 하지?

지리 조사에서 참가하는 모두가 실내조사에서 계획한 경로를 따라서 야외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 참여는 하되 조사할 곳은 담당 조가 중심이 되어서 야외 조사를 주도한다.

야외 조사는 실내 조사에서 준비하고 파악한 지



조	조사할 곳	조사 항목
1	곡운 김수중선생과 화음동정사	
2	평화의 댐	
3	한국전력공사 화천수력발전소	
4	비목 공원	

다솜이와 혼백이는 철원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철원에서 보냈고 지금은 어머니의 근무지인 춘천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을 한다.

삼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근무지인 화천에서 5년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자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화천을 다녀오곤 한다.

화천을 가기 위해서는 춘천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이용하지만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에서 화천을 경유하여 철원까지 연장되어지면 더 쉽고 빠르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오즈옴 다솜이와 혼백이는 비목문화제·얼음 축구·빙어 낚시, 스케이팅 시합 등을 TV에서 볼 때면 화천에서의 생활을 자주 되새겨 보곤 한다.

역의 특색을 확인하는 이외에도 새로운 지리적 사실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조사 활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한 내용은 사진 촬영, 녹취, 스케치, VTR 촬영, 면접지 정리 등 다양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잘 정리해 두어야만 한다.

(5) 야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야외 조사 활동을 통해서 얻은 자료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각 조별로 토의를 한 뒤에 정리를 하여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수집된 자료의 해석 : 실제로 해보기 1.

다음은 야외 조사 활동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화천의 지역적 특색을 서로 이야기해 보자.

(6) 화천지역의 지리 조사 보고서 작성

실내 조사에서 파악된 지역의 특성과 야외 조사 활동에서 얻은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각 조별로 조사한 항목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각 조의 대표들이 토의를 하여 야외 조사 내용을 정리한 최종 지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 화천 지역사회의 수업 구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

#### 1. 도서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94, 「한국지지 지방편 II-강원, 충북, 충남」, 대한지리학회.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7, 「지명유래집」, 대한지리학회.  
 권동희, 1998, 「지형도 읽기」, 한울.  
 권혁재, 1987, 「한국지리-지방편」, 법문사.  
 김길남, 1999, 「한눈에 보이는 한국지리」, 내일을

여는 책.

- 노웅희, 박병석, 1994, 「교실밖 지리 여행」, 세계질.  
 옥한석, 1999, 「향촌의 문화와 사회 변동」, 한울.  
 유흥준, 1994,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임덕순, 1994,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 집문당.  
 전홍식, 1996, 「보는 것만큼 안다」, 내일을 여는 책.  
 최영선, 1995, 「자연사기행」, 한겨레신문사.  
 한인수, 1983, 「한국의 발견-강원도」, 뿌리깊은 나무.

#### 2. 화천지역 관련 Internet Site

- [http://www.hwachon.kangwon.kr/a\\_gunsogae/a\\_3\\_5.htm](http://www.hwachon.kangwon.kr/a_gunsogae/a_3_5.htm) : 간동면, 사내면, 상서면, 하남면, 화천읍  
<http://www.kangwon.ac.kr/korean/index.html> : 강원대학교  
<http://www.ares.gangwon.kr/> : 강원도농업기술원  
<http://www.kado.net> : 강원도민일보사  
<http://www.kwpolice.go.kr> : 강원도지방경찰청  
<http://www.provin.gangwon.kr/home/html/main.asp> : 강원도청  
<http://www.gwhced.go.kr/> : 강원도 화천교육청  
<http://www.hwachon.kangwon.kr/> : 강원도 화천군  
<http://www.kidkangwon.co.kr/index.asp> : 강원일보사  
<http://www.chmbc.co.kr/> : MBC춘천문화방송  
<http://chunchon.kbs.co.kr/> : KBS춘천방송총국  
<http://kangnung.allian.co.kr/lifeHelper/tel/publishTel.htm> : 통계청강원통계사무소  
<http://www.hallym.ac.kr/> : 한림대학교  
<http://hwachun.kwpolice.go.kr/> : 화천 경찰서  
<http://www.209shopping.go.kr/shop/fStartPage.phtml> : 화천우체국

3. 지도 구입처

지역	취급점	연락처
강원도 춘천시	국토건설 기술공사	033)254-7708
서울특별시	강남지도센터	02)515-9191
	중앙지도문화사	02)730-9191~4

5. 결론 및 제언

오늘날의 향촌과 세계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시·공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보완적인 지역화라는 조류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아래에서 학습자들이 교수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식의 전환을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이루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법론적으로 지역지리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서 효율적으로 교수 학습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시대에 합당하게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 내용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지리 교육에서 소규모 지역에 대한 교육은 부실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경험을 축적한 소규모 지역에 대한 지역지리 교육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소규모 지역에 대한 교육도 국가적 시야, 세계적 시야의 지역지리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효과적이고 진전된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역지리교육은 과거에 지역의 변화가 적어 정적이고 등질적인 특성이 강했던 시기에는 주로 지역 자체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었다. 그렇지만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역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된 근래에 와서는 지역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점, 나아가 학습의 결과가 내면화되어서 가치와 태도를 가지도록 변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교육과정 중 지역지리의 내용과 특성

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지역교과서 구성을 위한 지역화 방안이 정립되었다. 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편성의 자율화를 허용했지만 국가교육과정으로는 지리 교육의 모든 내용과 지역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지역의 학습내용을 지역교과서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교수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소규모지역의 교육과정을 시행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화천지역의 지리적 사실들을 학습내용으로 하여 구성한 지역교과서는 단순히 지역학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리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습의 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연구였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 나아가 지역학습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적극적인 학습내용과 교수 학습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학습이 일선 학교에서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화 되고 정형화된 내용의 범위와 계열이 정해지고 합리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하겠다.

註

- 1)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65-66.
- 2) 최홍규, 2001, 지역지리 내용 구성과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42-43.
- 3) 강원대학교 박물관, 강원도 화천군, 1996, 화천의 역사와 문화 유적, 12-18.
- 4)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7, 택리지, 을유문화사, 131.

文獻

강원도·화천군, 1996, 화천의 역사와 문화 유적, 강원대학교 박물관.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박사학위논문.  
 교육부, 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7, 택리지, 을유문화사.  
최홍규, 2001, 지역지리 내용구성과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과교육학  
과 지리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최홍규, 2002, 지리교육의 의미, 강원교육, 170, 92  
-97.  
최홍규, 2003, 고등학교 지리교육의 현황과 운영 개

선방향-강원도 지역의 지리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209-219.  
화천군, 1996, 화천연감, 우남인쇄소.  
화천군, 2002, 통계연보, 우남인쇄소.

(접수 : 2002. 5. 23, 채택 : 2003. 8. 28)